

August
2010.8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 최근의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0년 8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 집 위 원 이재관, 권희태, 조경연, 맹부영, 이인배, 한무호, 신동호, 김양중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김윤아

경제일지 하광학, 김범수, 박용진

외 부 집 필 진 정상은(한남대학교)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8 팩스(041) 840-118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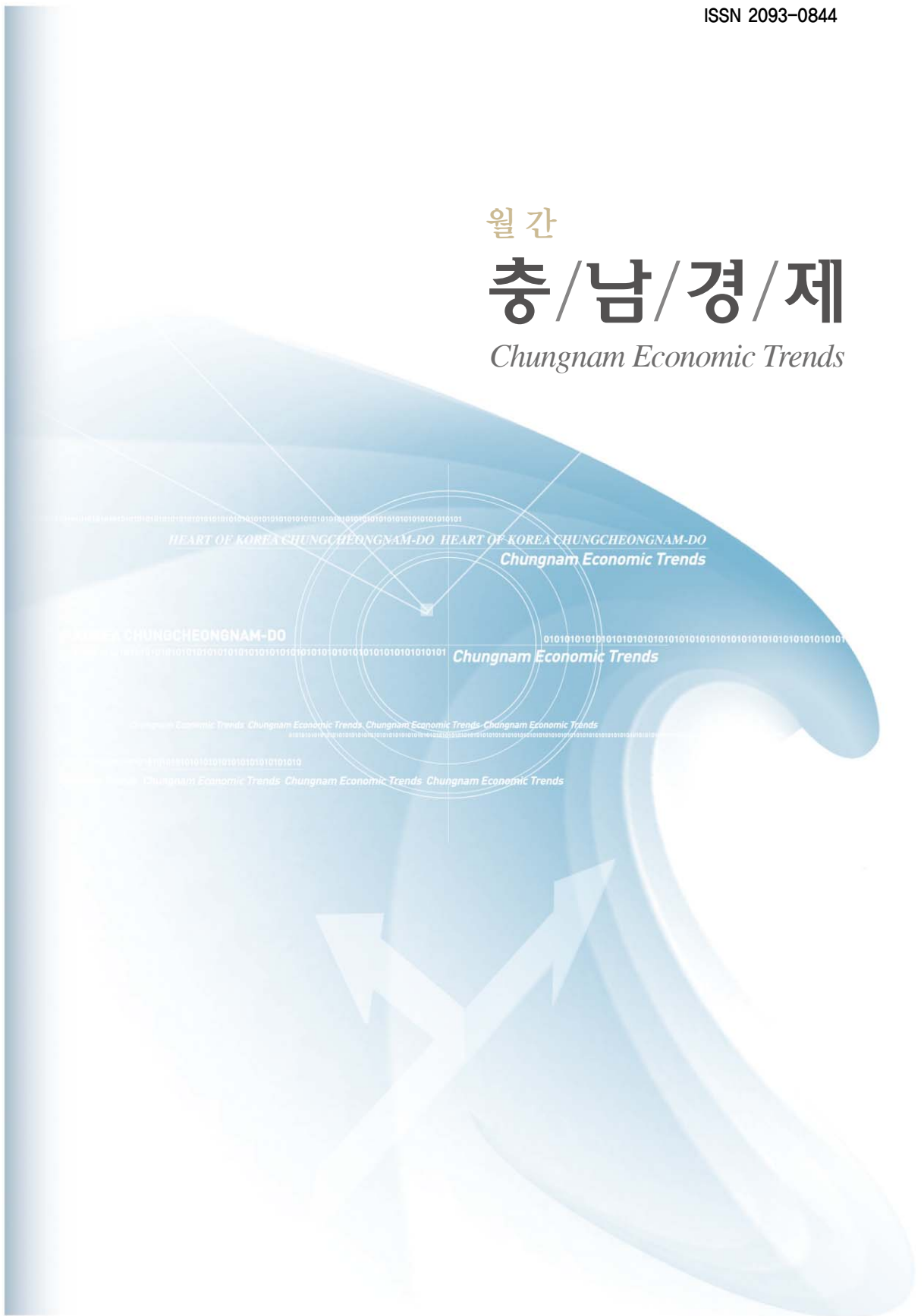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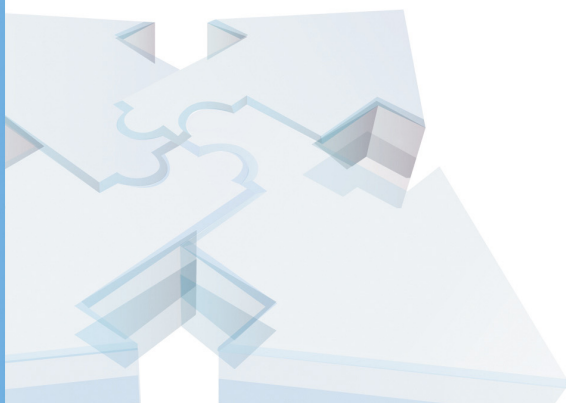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ISSUE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3
FOCUS	최근의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13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18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27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및 물가	7. 건설 및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5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5
	2. 충남 주요경제지표	57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59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72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4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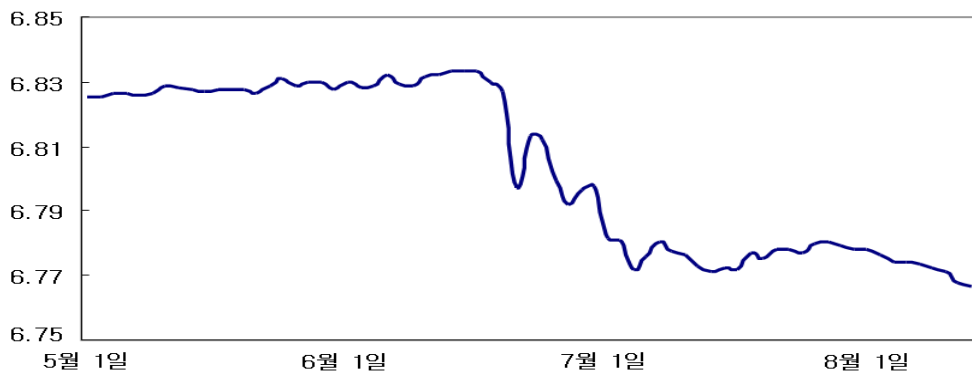
정 상 은 |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1. 최근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

1) 한달만에 위안화의 환율이 0.8% 절상

중국 인민은행은 금년 6월 19일에 미국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되어 온 현 환율시스템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복귀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이전인 6월 18일 달러당 6.83이던 위안화 환율은 8월 6일 현재 6.77로 가치가 절상되었다. 한달 반 동안 위안화의 對달러 환율이 0.8% 평가절상된 것이다.

환율제도 개혁 전후의 위안화 환율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국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해 왔으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 등 대중국 무역적자국들의 환율 조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7월에 미 달러, 유로화 등 11개국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일변동폭을 ± 0.5 로 확대하는 환율개혁을 단행하였다. 통화바스켓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국 당국은 달러화에 대한 가중치를 크게 줄이지 않아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년 이상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로화 등 강세 통화의 바스켓 가중치를 점차 늘리면서 위안화 가치는 2007년부터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화바스켓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위안화는 18.5% 평가절상 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자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으로 사실상 고정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위안화 절상률은 0.1%로 떨어졌다.

연도별 위안화 가치 변동률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절상률(%)	0.0	2.5	3.2	6.5	6.4	0.1

자료 : CEIC.

2) 대외 압력 고조와 수출 호조가 평가절상의 주요인

최근 환율제도를 제한적 변동환율제인 통화바스켓 방식으로 환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회복된데다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 EU, 세계은행, IMF 지도자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촉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였고 2010년 3월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중미 간 환율 갈등이 고조되었다. 2009년 11월 중국-EU 정상회의에서 바호주 EU집행위원장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하였고, IMF의 칸 총재와 줄릭 세계은행 총재도 여기에 가세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G7을 대체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 ‘글로벌 인밸런스(Global imbalance)’이며 이는 환율조작을 통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국정부는 외부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해 2010년 3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다른 나라 화폐를 강제적으로 절상하려는 압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평가절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환율체계를 개선할 것임을 표명하는 등 환율제도의 개혁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 들어 지속된 수출 호조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 전년대비 16% 감소한 중국의 수출은 2010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對미국 수출은 44%, 對EU 수출은 43% 각각 증가하여 이들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 적정 환율

1) 1990년대 이후 세 차례 환율제도 변경을 노정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환율정책은 국가가 일괄적인 수지관리, 집중관리 및 통일관리를 하는 계획환율제도였다. 1978년 개혁개방으로 대외무역이 크게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1981부터 대외 및 대내 환율을 차등적용하는 이중환율제도가 실행되었다.

이중환율제도는 외환이 귀하던 시절에 수출은 촉진하는 반면 내국인의 외환 보유는 제한하기 위한 제도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환율제도에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예컨대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심각한 부진에 빠졌던 1997년에는 고정환율제도로 바꾸고 수출이 사상 최고의 호조를 지속한 2005년 7월에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8년 7월에는 다시 고정환율제로 환원한 것이다.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 추이

기간	제도	내용	수출 추이
1981년 이전	계획환율제도	• 정부가 외환을 통일 관리	-
1981~1993	이중환율제	• 대외, 대내 환율 차등 적용	-
1994~1997	관리변동환율제	• 이중 환율제 폐지 • 관리변동환율제, 일변동 $\pm 0.3\%$	수출 호조
1997~2005.7	사실상 고정환율제	• 8.28위안에 환율이 고정	수출 부진
2005.7~2008.7	통화바스켓제도	• 11개국 통화로 바스켓 구성 • 일변동 $\pm 0.5\%$ 로 확대	수출 호조
2008.7~2010.6	사실상 고정환율제	• 6.83위안에 고정	수출 부진
2010.6~	통화바스켓제도	• 평가절상 재개	수출 호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다시 변동환율제인 통화바스켓제도로 전환했으나 실제로는 환율변동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환율결정 체계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컨대, 현행 통화바스켓제도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총 11개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달러, 유로, 엔화, 한국의 원화가 4대 통화이나 정작 가장 중요 통화별 비중은 국가 기밀이다. 이는 정부에서 바스켓 통화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환율을 조작할 여지를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와 달러의 비중이 가장 크나 수시로 비중이 바뀌고 원화와 엔화는 비중이 거의 없거나 간헐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다.

2) 점진적 평가절상을 통해 위안화 저평가 상태를 유지

중국정부는 환율변동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통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한 이후 평가절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호조를 지속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 되었으나 경상수지,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치밀한 속도 조절의 결과 위안화의 가치가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2000~2009년간 위안화 환율은 18.5% 절상되었으나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는 34% 하락하여 환율의 저평가 상태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위안화는 여전히 16% 정도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IMF도 자체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위안화 환율이 17~18% 저평가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향후에도 상당 기간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수입의 50%는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이다. 이는 수출이 감소하면 수입도 함께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수출이 16%나 감소한 2008년에도 중국은 1,961억달러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출 감소에 따라 수입도 11.2% 감소했기 때문이다. 무역흑자 외에도 물가 불안,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안화 국제화 등도 중국이 향후에 평가절상을 지속할 중요한 요인이다.

1) 물가불안과 경기과열 완화를 위해 위안화 절상 필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6.2%로 크게 둔화된 이후 5분기 연속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11.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6% 상승하여 금년 정부 목표치인 3%에 근접했다. 중국정부는 대출규모 축소, 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으로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는 금리인상이나 이는 중국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기업 도산과 실업 등으로 경기가 급랭하고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을 대체할만한 추가조치가 필요한데 위안화 절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정책수단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출국이지만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입 국가이기 때문이다.

2)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탈피 위한 일환

중국을 지금까지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전 세계적인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로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대규모 실직 사태로 소비증가율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중국이 이전처럼 20~30%대 수출증가율을 수년간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촌거주자의 가전, 자동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자동차하향(汽車下鄉) 등이 대표적인 내수확대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 위안화 절상으로 민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내수 견인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은 내수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3) 위안화 국제화에 환율제도 개혁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국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미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화했으며 홍콩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1위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유동성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위안화 기준으로 통화스왑 체결했으며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물론, 위안화 절상, 나아가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4)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위안화 절상은 일면 원화의 위안화 대비 상대적인 절하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출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혼재해 있어 최종 효과는 각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 및 자본재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자본재 수출도 동반 감소할 수 있다.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위안화의 절상과 동반하여 원화가 절상된다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 예컨대 2005~2008년 위안/달러와 원/달러의 상관관계는 0.79로 높은 편이다. 위안화가 100이 절상되며 원화도 79만큼 동반 절상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위안화 절상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장기적 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

충청남도는 금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이 94억달러로 전년동기비 46.5% 증가하는 등 2009년(25.9% 증가)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대중국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2010년 월별 대중국수출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액(백만달러)	1,563	1,359	1,664	1,589	1,619	1,581
증가율(%)	112.9	43.4	46.4	37.4	38.2	26.2

자료 : 무역협회.

특히,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등 중국의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임을 고려하면 일회성 수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수시장을 파고들기 위한 직접투자 확대,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진출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절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국 사업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와 영향”, 2010.5.

포스코경영연구소,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2010.7.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경제의 2009년 회고와 2010년 전망”, 2010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www.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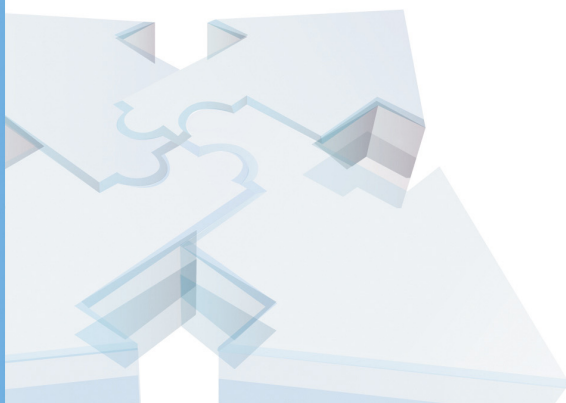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중국인민은행(www.pbc.gov.cn)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최근의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백운성 ·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8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1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p 인상한데 이어 8월 12일에는 금리를 동결함
 - 2008년 10월~2009년 2월까지 5.25%에서 2.00%로 3.25%p가 낮아졌고, 이후 16개월 연속 2.00%에 머무르다 지난 7월 2.25%로 17개월만에 전격 인상
-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은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동반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1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기준금리 동결과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회복 둔화를 공식화하였음
 - 중국경제도 정부의 대출 억제, 부동산투기 규제 등으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증가율은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이와 함께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가계·기업의 이자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
- 이번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9월의 명절과 연말을 감안하면 격월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은 3% 수준으로 전망)

-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한 달 사이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의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각종 긴축조치를 취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적 차원으로 볼 수 있음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기준금리의 변화

-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5~6월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국내경기의 회복과 함께 물가상승의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대체로 회복세로 전환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주 및 주요국 경기 변동성 확대 등 위험성 내재)
 -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4분기 세계경제의 호조를 보인 것과는 달리 8월 들어 미국과 EU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돼 FOMC가 경기판단을 바꾸는 등 세계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동반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가중 등의 시장요인
- 이번 8월의 기준금리 동결은 향후 하반기 금리인상에 있어서의 추가적 압력이 있지만, 두 달 연속 이뤄지는 금리 인상이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 지배적임
 -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제 회복속도가 정체되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음

-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내제
 -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3% 수준의 추가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

-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원/달러 환율 하락) →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 소비와 투자부진’을 유발하는 등 민간부문 활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음
- 금년 2분기 경제성장률(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상승하며 10년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출구전략 등에 기인한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음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분기 -2.2%, 3/4분기 1.0%로 플러스로 전환한데 이어 4/4분기 6.0%, 2010년 1/4분기 8.1%를 기록, 전기 대비에 있어서는 1.5% 상승해 전분기의 2.1%보다 상승폭이 다소 감소
- 또한, 연말까지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등에 기인한 어느 정도(물가상승률 3% 수준 전망)수준의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업)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에 대비

- 최근의 수출호조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기반의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6월 수출기업 체감경기는 10년 만에 가장 좋지만 내수기업은 전월보다 나빠져 양극화가 확대(2010년 6월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소상공인의 6월 체감경기BSI는 87.7을 기록,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이하(소상공인진흥원, 매일경제, 2010.7.8)

-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수출기업들은 ① 수출채산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상은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고, ②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높혀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중소수출기업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국제 유동성 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하락에 탄력이 붙게 되면 중소수출기업으로선 이중삼중의 어려움
- 기업의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금회전율이 느린 산업에 대한 일시자금지원 방안 고려도 필요
 -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부채비율이 높으면 기준금리가 오를 때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낮으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고용) 중소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책 정비

- 경기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끌어올리고, 투자와 소비(내수)는 다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됨. 즉 경기상승의 마지막 단계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 현재의 국내경기에 있어서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커지는 등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부담으로 결국 고용창출이 더디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부동산) 주택 및 건설경기의 위축우려

- 현재 주택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신규 구매 수요까지 억제해 분양시장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0.25%상승시 1억원(1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빌렸을 때 한달이자 평균 50만원에서 52만원 안팎으로 불과 2만원가량 상승(1년에 24만원상승)하여 겉보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주택구입자들의 심리적 부담 가능
 - 향후 기준금리 확대될 전망을 반영한 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침체 가능

-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다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대기수요에서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내제
-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 등의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연체율이 16.4%와 0.4~0.5% 등으로 낮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도 주택매물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
 - 또한, 실제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올린상태로 현재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김 양 중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일자리 창출?

- 최근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말처럼 쉬운 과제일까?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의 확대이지만 일련의 경제위기
는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런 상황 하에서 수출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거래선의
발굴 및 수출절차의 어려움으로 수출을 하지 못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며 대기업보다는 노동집약적이어서 수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아울러 수출은 제품이 생산에서 출하에 걸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당
수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김종구,
2008)
- 그렇다면 충남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일까?

2. 충남의 수출현황 및 지원제도

- 우리나라는 2009년에는 3,635억불을 수출하였으며 충남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울산, 경기, 경남 다음의 수출지역으로 394억불을 수출하였음

광역자치단체별 수출입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명	2009	
		금액	증가율
	합계	363,534	-13.9
1	울산	60,814	-22.8
2	경기	58,007	-5.0
3	경남	54,601	-4.0
4	충남	39,428	-8.2
5	경북	38,510	-19.1
6	서울	33,067	-0.7
7	전남	23,295	-19.8
8	인천	15,369	-25.1
9	부산	9,497	-26.1
10	광주	8,883	-5.6
11	충북	8,080	-12.3
12	전북	6,032	-11.8
13	대구	3,892	-14.2
14	대전	2,851	-4.6
15	강원	1,120	-21.3
16	제주	87	4.9
17	기타	0	-100.0

- 2009년 충남의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이며 그 다음으로 기계류, 광산물, 철강 금속제품 순이었음
- 특히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4%의 수출 증가를 이룩하였음
- 충남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시장개척을 비롯하여 경영지원, 기업육성지원, 정보지원, 홍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충남의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명	2009	
		금액	증가율
	합계	39,428	-8.2
1	전자전기제품	28,077	4.0
2	화학공업제품	4,421	-10.1
3	기계류	2,558	-32.4
4	광산물	2,031	-45.3
5	철강금속제품	1,251	-48.2
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94	5.9
7	농림수산물	221	7.8
8	섬유류	131	-15.9
9	생활용품	113	-25.2
10	잡제품	30	42.7

주 : 품목분류는 MTI 1단위임.

- 충남의 수출지원제도의 주요사업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시장개척이 57%로 가장 높고 자금지원, 경영지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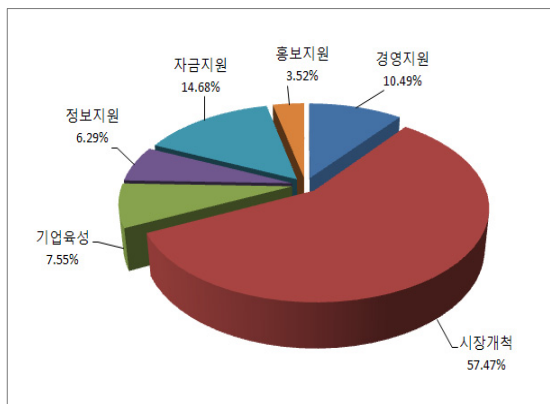
충남의 수출지원제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경영지원	통·번역지원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해외시장컨설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시장개척	무역사절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해외전시회	충남우수상품전 해외 개최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Target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국내전시회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육성	수출유망 중소기업육성	수출기업육성 지원
정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중소수출기업 해외거래선 발굴지원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자금지원	수출보험·보증사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전자무역)수출지원	수출 유망상품 해외홍보 지원
교육지원	무역관련 교육·연수 사업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지원
기타	기타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충남수출지원제도의 예산비중

대분류	사업비중(%)
경영지원	10.49
시장개척	57.47
기업육성	7.55
정보지원	6.29
자금지원	14.68
홍보지원	3.52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3.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2007년 전국산업연관표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음
- 먼저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8로 수출 10억당 19.8억의 생산을 유발하였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0으로 수출 10억당 6.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였음
- 취업유발계수¹⁾는 9.43으로 수출 10억당 9.4명의 취업을 유발하였으며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9.9명, 2007년 9.4명으로 감소
- 비록 수출의 고용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기업의 해외진출과 기계화 및 자동화 때문으로 여겨짐

우리나라 수출의 각종유발계수(2007)

구분	2005	2006	2007
생산유발계수			1.98
부가가치유발계수			0.60
취업유발계수 ²⁾	10.78	9.89	9.43

1)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2) 수출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

- 충남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29로 수출 10억당 충남에서 12.9억, 타지역에서 7.1억의 생산을 유발하였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34으로 수출 10억당 충남에서 3.4억, 타지역에서 2.4억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였음
- 충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8.10으로 충남의 수출 10억당 충남에서 4.1명, 타지역에서 4.0명의 취업이 유발되었음
- 앞서 2005년 우리나라의 수출 10억당 취업유발계수가 10.8명인데 비해 충남의 취업유발계수가 8.1명으로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충남의 산업이 대기업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중심이기 때문으로 여겨짐

충남 수출의 각종유발계수(2005)

구분	충남	타지역	총계
생산유발계수	1.29	0.71	2.00
부가가치유발계수	0.34	0.24	0.58
취업유발계수	4.06	4.04	8.10

- 최종수요가 수출에서 유발되었다는 가정하에 각 산업별로 최종수요 10억당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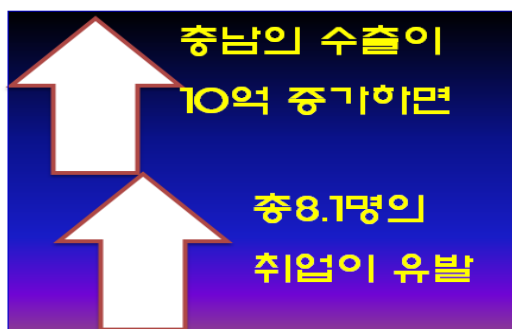
충남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

OBS	충남	타지역	총계
농림수산물	49.18	5.18	54.35
광산물	6.40	3.65	10.06
음식료품	19.91	10.09	30.00
섬유 및 가죽제품	7.33	6.83	14.16
목재 및 종이제품	4.72	4.03	8.75
인쇄 및 복제	11.87	5.91	17.78
석유 및 석탄제품	0.34	0.43	0.77
화학제품	3.04	3.46	6.51
비금속광물제품	4.83	3.95	8.78
제1차금속제품	1.59	3.66	5.25
금속제품	5.34	5.22	10.56
일반기계	5.06	6.00	11.06
전기 및 전자기기	3.60	3.80	7.40
정밀기기	6.68	5.42	12.10
수송장비	3.17	6.01	9.18
기타제조업제품	5.54	7.96	13.51

- 충남의 농림수산물 최종수요 10억당 취업유발인원은 54.4명이며 충남에서 49.2명이 타지역에서 5.2명이 유발되었음
- 충남의 주요수출품인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의 경우 최종수요 10억당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7.4명, 6.5명이며 충남에서 각각 3.6명, 3.0명이 타지역에서 각각 3.8명, 3.5명이 유발되었음
- 최종수요 10억당 취업유발인원이 가장 많은 산업은 농림수산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인원이 가장 적은 산업은 석유 및 석탄제품으로 나타났음

4. 맺음말

- 우리나라의 수출 10억당 취업유발계수가 10.8명인데 비해 충남의 취업유발계수는 8.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이 대기업 중심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중심이기 때문으로 여겨짐



- 그러나 충남의 수출지원이 대기업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취업유발인원은 이보다는 클 것으로 여겨짐
- 실제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중소기업 수출 10억당 고용효과는 대기업의 2.3배 이상



- 따라서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수출의 고용효과 감소’ 등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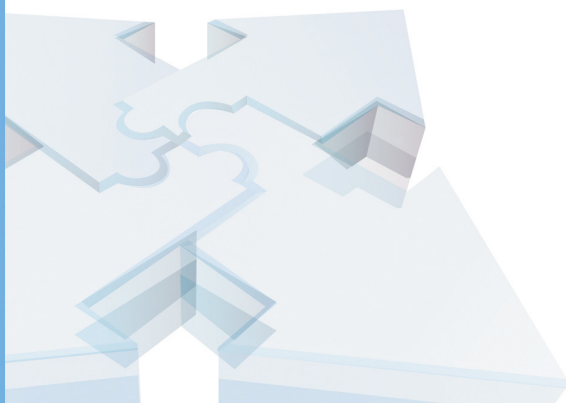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종구, '지역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무역학회지, 2008.
- 김수현 외, 'IT기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혁신학회지, 2006.
- 김진덕 · 조택희,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충북지역 산업구조분석: IT · BT산업을 중심으로', 충북개발연구원, 2000.
- '2007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 권태현,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2004.
-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2009.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와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한국은행, 2009.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6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7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가)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2.2	136.8	127.3	115.1	117.7	115.9	41,921	35,493	25,158	24,280	3.5
서울	102.9	101.6	139.2	118.3	117.0	115.3	4,256	8,746	5,209	4,988	4.2
부산	129.5	123.9	159.2	117.0	118.1	116.2	1,108	1,082	1,648	1,594	3.2
대구	121.7	125.0	137.8	91.1	117.1	115.3	449	255	1,238	1,192	3.7
인천	114.2	116.8	93.1	112.2	117.3	116.2	1,718	2,471	1,394	1,334	4.3
광주	147.6	145.5	112.5	116.9	118.1	116.1	1,011	537	704	677	3.9
대전	119.3	120.2	115.8	102.7	117.5	115.9	334	249	735	709	3.5
울산	121.5	116.3	106.4	105.4	118.8	117.2	6,516	4,699	557	536	3.7
경기	164.1	148.2	177.5	113.7	118.4	116.4	7,635	6,810	6,003	5,736	4.4
강원	120.8	119.6	168.8	135.4	117.2	115.7	133	78	714	703	1.5
충북	155.5	165.7	165.3	108.0	118.1	116.3	841	560	778	767	1.4
충남	220.6	199.1	165.8	127.6	118.5	116.7	4,600	2,363	1,037	1,015	2.1
전북	133.9	139.4	124.5	122.9	118.6	116.7	1,039	368	873	855	2.1
전남	126.8	122.8	110.9	141.9	117.6	116.1	2,324	2,621	914	898	1.8
경북	109.7	108.7	136.5	126.3	118.1	116.4	3,466	1,751	1,449	1,418	2.1
경남	150.4	151.6	116.7	123.9	118.5	116.8	6,486	2,883	1,618	1,573	2.8
제주	127.3	125.5	77.1	142.2	117.3	115.1	6	18	289	285	1.5

경제동향 [총괄]

경기

- 6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6로 전월대비 0.52%p 상승
- '09년 5월부터 14개월 연속 상승국면 지속

산업활동

- 6월 산업생산지수(+2.7%) 및 제품출하지수(+2.1%) 모두 전월대비 증가세 지속
-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 금속 등이 생산·출하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6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7.9%, 전월대비 9.6% 감소
- 7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0.4% 증가,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0.4% 상승

수출입

- 6월 중남의 수출은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41.2%로 상승세 지속 및 전월대비 2.5% 상승(44억달러 수출)
-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41.7% 증가, 전월대비 22.5% 증가(23억63백만달러 수입)
- 6월 무역수지 22억37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고용

- 6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과 동일, 전월대비 0.6% 증가, 취업자 102만명
- 6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 39.7% 감소, 전월대비 13.4% 감소, 실업률 2.1%

건설 및 부동산

- 6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46.5%) 증가 및 착공면적(+23.4%)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
-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포함세 기록, 주택전세가격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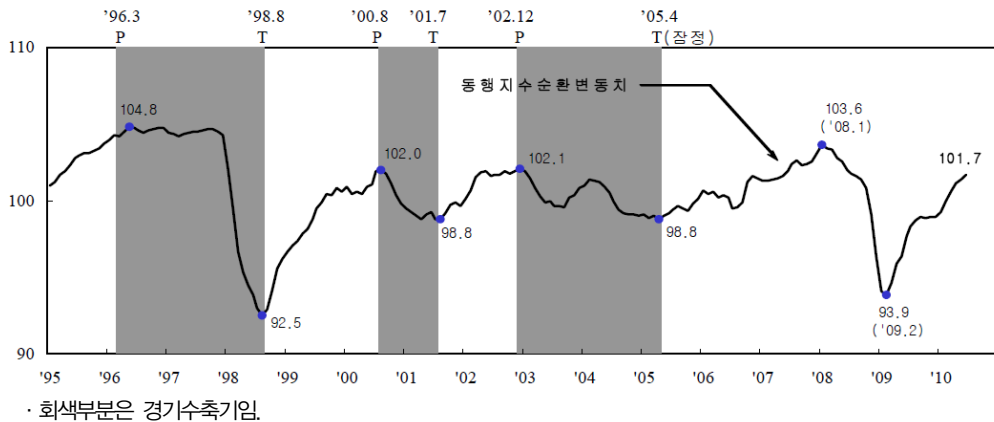
1. 경기

[전국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가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상승
 - * '09.3월부터 1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09.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동행종합지수	124.7	125.2	126.2	127.7	128.9	130.1	131.0	132.0
· 전월비(%)	0.5	0.4	0.8	1.2	0.9	0.9	0.7	0.8
○ 순환변동치	99.0	98.9	99.3	100.0	100.6	101.1	101.4	101.7
· 전월차(p)	0.1	-0.1	0.4	0.7	0.6	0.5	0.3	0.3



-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등 6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자본재 수입액, 건설수주액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4%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7.0%로 전월보다 0.9%p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09.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선행종합지수	126.1	127.0	127.4	127.1	127.3	127.1	127.7	128.2
· 전월비(%)	1.1	0.7	0.3	-0.2	0.2	-0.2	0.5	0.4
○ 전년동월비	11.3	11.6	11.3	10.3	9.7	8.6	7.9	7.0
· 전월차(%p)	1.0	0.3	-0.3	-1.0	-0.6	-1.1	-0.7	-0.9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0. 6월중 동행종합지수는 132.3으로 6개의 모든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82%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2%p 상승한 102.6을 나타내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 2009년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09.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동행종합지수	125.7	126.3	127.6	128.8	129.7	130.4	131.2	132.3
· 전월비(%)	0.81	0.51	1.03	0.94	0.72	0.50	0.62	0.82
○ 순환 변동치	100.5	100.6	101.1	101.5	101.6	101.8	102.1	102.6
· 전월차(%p)	0.34	0.01	0.51	0.40	0.15	0.20	0.32	0.52

주) p는 잠정치임.

- 6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모두 전월대비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0.26%), 산업생산지수(1.24%), 대형소매점판매지수(0.92%), 전력사용량(1.30%), 수출액(1.26%), 수입액(3.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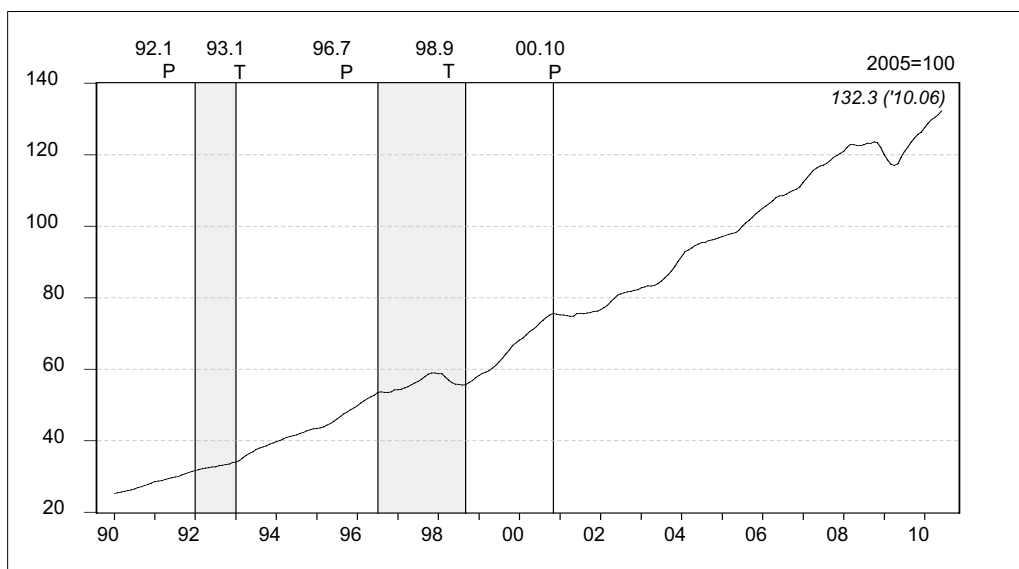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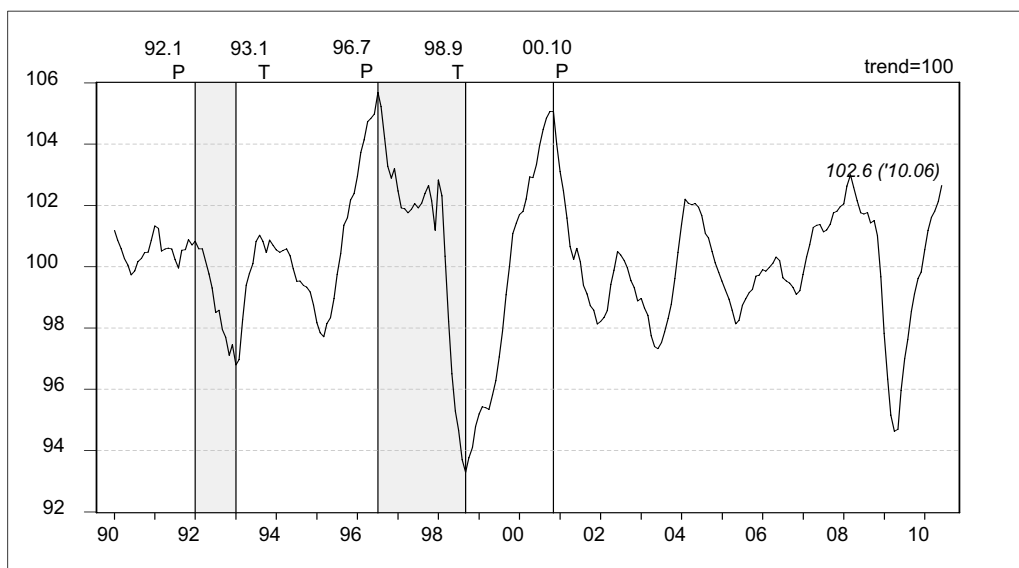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09.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비농가취업자수	-0.07	-0.65	0.03	0.37	0.63	0.72	0.31	0.26
산업생산지수	2.03	1.71	1.34	0.60	0.66	0.51	1.23	1.2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42	0.64	2.33	2.28	-0.39	-2.10	-2.49	0.92
전력사용량	1.81	1.87	2.66	2.41	2.21	1.83	1.79	1.30
수출액(실질)	3.06	3.71	2.36	1.70	2.26	1.39	2.30	1.26
수입액(실질)	1.10	0.54	2.91	2.31	0.97	0.77	2.58	3.51

주)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0. 8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의 업황전망 BSI는 전월보다 상승, 비제조업의 경우 전월보다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제조업의 경우 전월보다 하락, 비제조업의 경우 전월보다 상승
 - 업황전망 BSI : 제조업 7월 98→8월 100, 비제조업 7월 90→8월 85
 - 자금사정전망 BSI : 제조업 7월 95→8월 93, 비제조업 7월 90→8월 94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의 경우 자금사정은 8월에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7월과 8월 모두 자금사정의 악화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전월대비 변동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경기	91	96	99	101	100	98	100(102)	+2(-2)
매출	103	109	108	114	116	116	112	-4
생산	106	110	110	113	117	115	114	-1
신규수주	96	104	105	106	108	110	110	0
채산성	94	93	95	97	94	93	94	+1
제품재고	103	99	99	94	98	99	100	+1
인력사정	94	90	88	90	90	89	86	-3
자금사정	95	99	101	102	99	95	93	-2
외부자금수요	113	110	110	107	112	115	111	-4
자금조달사정	96	100	100	100	103	99	93	-6

주)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전월대비 변동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경기	88	90	87	95	90	90	85(89)	-5(+2)
매출	96	94	94	100	97	94	92(101)	-2(+3)
채산성	92	95	93	93	87	90	89(95)	-1(0)
인력사정	91	90	91	92	92	94	97(93)	+3(0)
자금사정	90	92	88	91	90	90	94	+4
외부자금수요	111	107	114	116	119	118	116	-2
자금조달사정	95	97	94	97	95	97	98	+1

주)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 2010. 6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5%, 전월대비 2.7% 각각 증가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산업생산지수	185.2	207.4	185.4	225.1	214.6	216.7	221.4
전년동월비	14.5	72.7	33.6	36.0	25.0	22.3	19.5
전월비	5.0	3.2	-0.7	3.2	-3.4	2.6	2.7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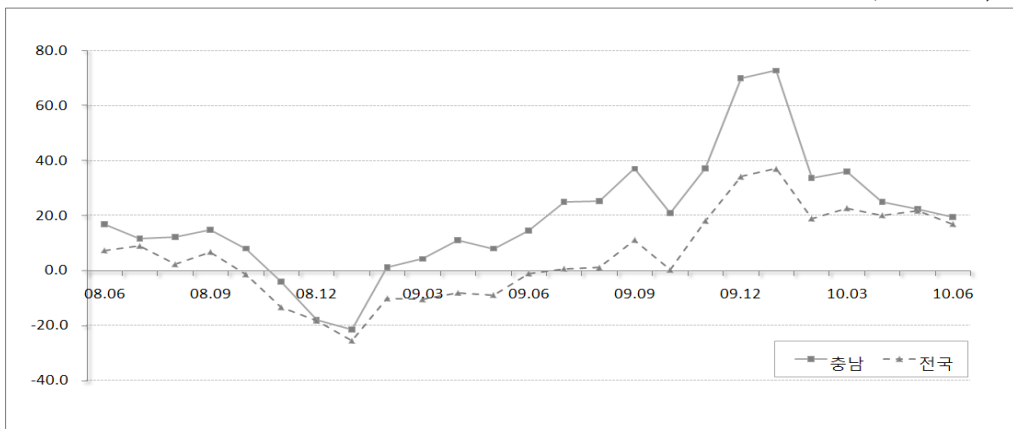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21.0) : TV용LCD, 노트북용LCD, PDP, 백라이트유니트 등
- 기계및장비(+63.7) : 감속기, 반도체조립장비,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등
- 제1차금속(+56.1)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열연대강, 석도강판 등
- 자동차(+22.8) :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대형승용차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9.7) : 제트유, 병커C유, 부탄가스, 솔벤트 등
- 의료정밀및광학(-51.1) : 광선치료기, 무선원격조절기, 안경렌즈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0. 6월 충남의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2% 및 전월대비 2.1% 각각 증가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출하지수	171.6	186.5	168.0	207.0	195.5	196.1	201.2
전년동월비	13.4	65.5	29.5	33.0	22.6	20.2	17.2
전월비	4.6	2.2	-1.5	4.2	-4.1	2.9	2.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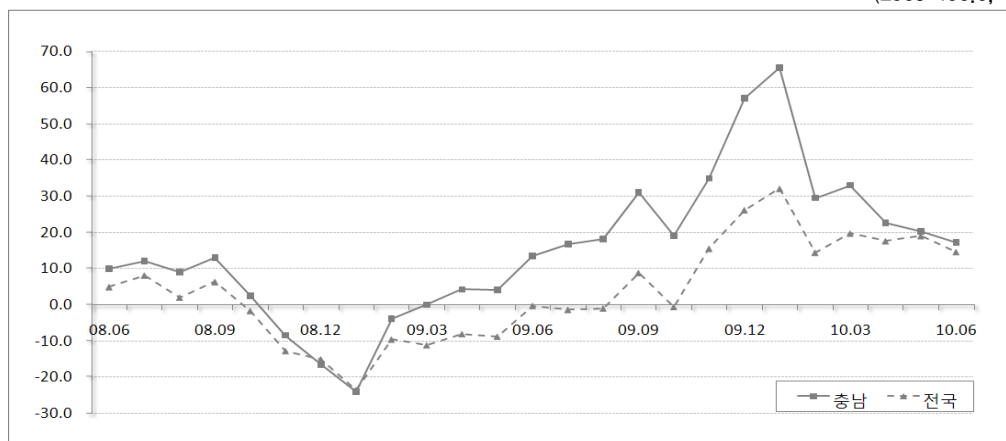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21.4) : TV용LCD, 노트북용LCD, PDP, 백라이트유닛 등
- 기계및장비(+64.5) : 감속기,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반도체공정장비 등
- 제1차금속(+41.3)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주물, 빌렛 등
- 자동차(+13.5) :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자동차용내연기관, 기관용부품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12.3) : 제트유, 병커C유, 경유, 부탄가스 등
- 의료정밀및광학(-41.5) : 광선치료기, 무선원격조절기, 안경렌즈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0. 6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4%, 전월대비 6.5% 각각 증가
 - 섬유제품, 가구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P	4월 ^P	5월 ^P	6월 ^P
재고지수	122.4	126.4	136.2	140.6	146.0	156.3	163.3
전년동월비	-2.9	-7.4	-0.4	4.5	6.3	19.9	33.4
전월비	-4.4	0.9	9.8	0.9	6.6	6.4	6.5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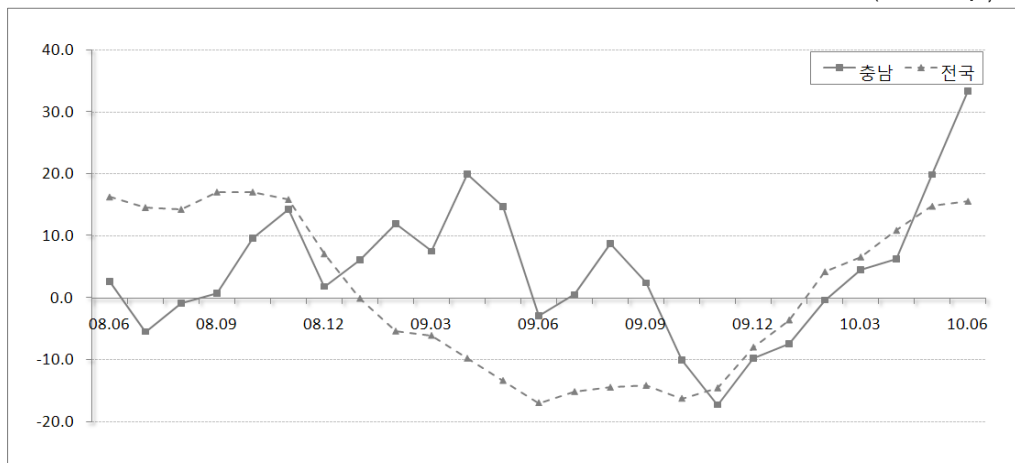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76.7) : TV용LCD, 모니터용LCD, PDP, 노트북용LCD 등
- 자동차(+120.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18.5)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갈바늄강판 등
- 전기장비(+14.4) : 소형2차전지셀, 비데, 전력선, 김치냉장고 등

[감소업종]

- 섬유제품(-29.2) : 자동차용커버, 타포린, 원단편조물, 재생섬유직물
- 가구제조업(-58.0) : 싱크대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및 물가

[소비]

- 2010. 6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83,51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9.6% 감소,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지수는 127.6 기록
- 내구재는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감소로 인해 대형마트 경성판매액은 전월대비 4.7% 감소,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2.0) : 가전제품(+7.7), 기타(-12.7)
- 준내구재(-11.1) : 운동, 오락용품(-28.4), 의복(-9.0), 신발(-8.1)
- 비내구재(-3.2) : 화장품(-10.4), 음식료품(-2.7)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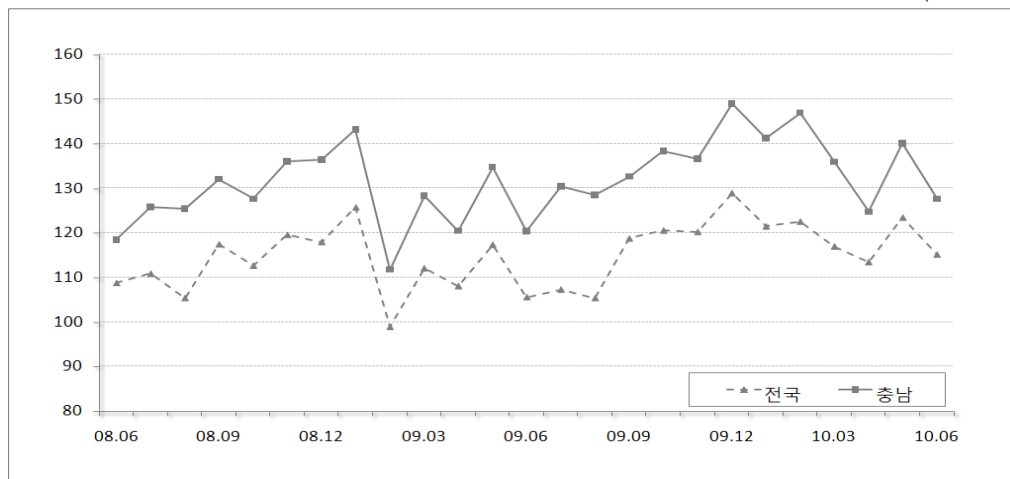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6월	3월	4월	5월 ^o	6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072,948	4,586,585	4,501,473	4,882,983	4,530,775	11.2	-7.2
충 남	133,982	152,260	142,156	160,132	148,085	10.5	-7.5
대형소매점	77,414	88,807	82,498	92,366	83,516	7.9	-9.6
대형마트	56,568	63,453	59,658	67,764	64,569	14.1	-4.7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 2010. 7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18.5로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21.1로 전월대비 4.9% 상승, 전년동월대비 18.5%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0%, 29.6% 상승, 신선과일은 8.0% 상승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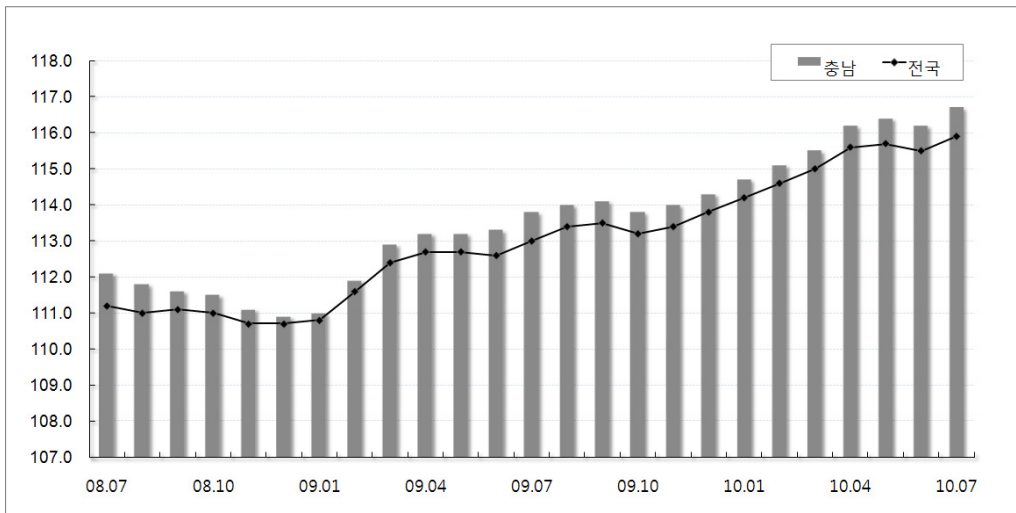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3.0	115.6	115.7	115.5	115.9	2.6	0.3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3.8	116.2	116.4	116.2	116.7	2.5	0.4
상·하 상·하	상 품	113.8	117.9	118.2	117.7	118.5	4.1	0.7
	서비스	113.8	115.0	115.2	115.2	115.4	1.4	0.2
생활물가지수		115.4	118.5	118.5	118.0	118.5	2.7	0.4
신선식품지수		102.2	124.8	122.0	115.4	121.1	18.5	4.9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0. 6월 충남의 수출은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46억달러)하여 증가세 지속(+49.1%→+41.2%)
 - 평판디스플레이(+21.3%), 반도체(+58.4%), 석유제품(+24.3%)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0. 6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월보다 증가
 - 원유(+36.2%), 석유제품(+62.5%) 등으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유지(+49.4%→+41.7%)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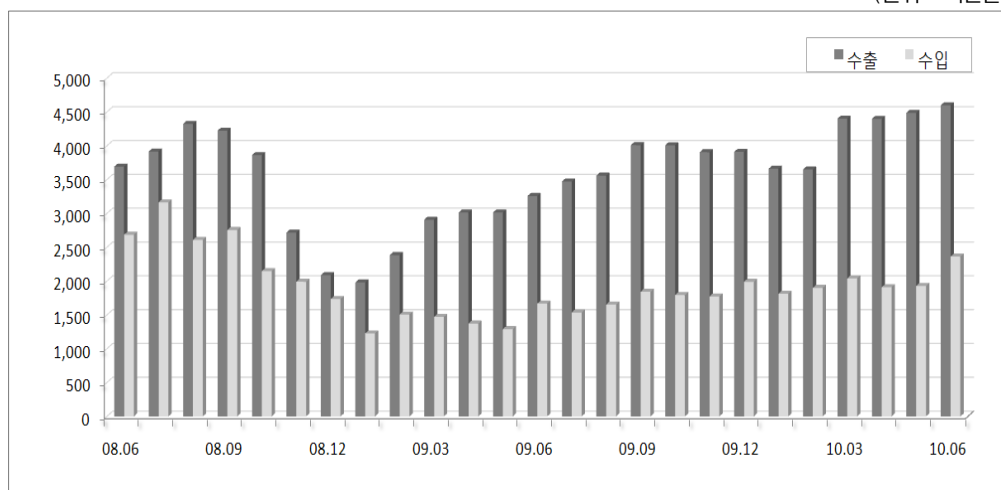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6월	2010년					증감율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 출	32,210	37,427	39,359	39,026	41,921	30.1	7.4
	수 입	25,689	35,520	35,462	34,909	35,493	38.2	1.7
	무역수지	6,521	1,907	3,897	4,117	6,428	-	-
충남	수 출	3,258	4,402	4,399	4,488	4,600	41.2	2.5
	수 입	1,668	2,041	1,910	1,929	2,363	41.7	22.5
	무역수지	1,590	2,361	2,489	2,559	2,237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6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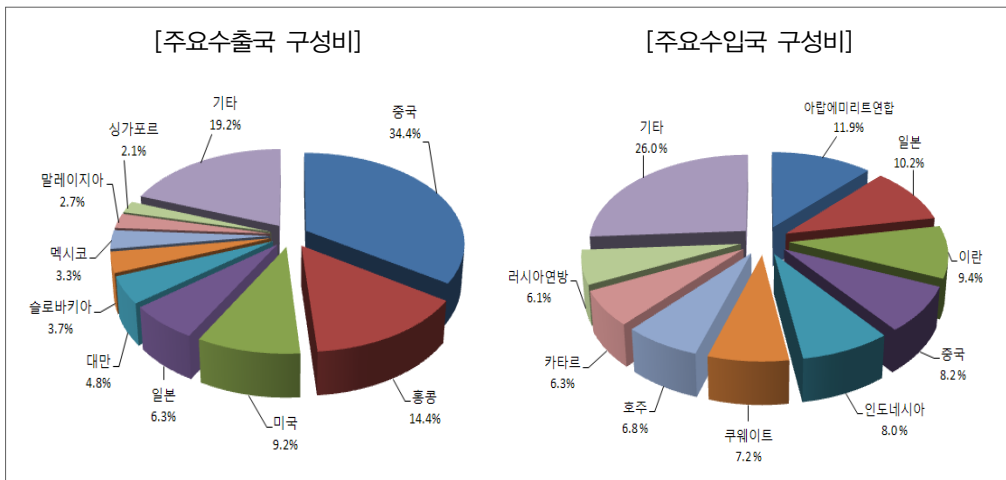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600	41.2	2.4	100.0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468	21.3	-4.1	31.9
2	반도체	1,374	58.4	0.6	29.9
3	석유제품	252	24.3	45.7	5.5
4	컴퓨터	161	40.9	21.1	3.5
5	합성수지	160	30.2	-7.0	3.5

6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363	41.7	22.5	100.0
1	원유	857	36.2	31.2	36.3
2	석유제품	324	62.5	6.2	13.7
3	석탄	305	31.9	66.7	12.9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69	15,750.0	102.9	2.9
5	원동기및펌프	63	60.4	133.3	2.7

6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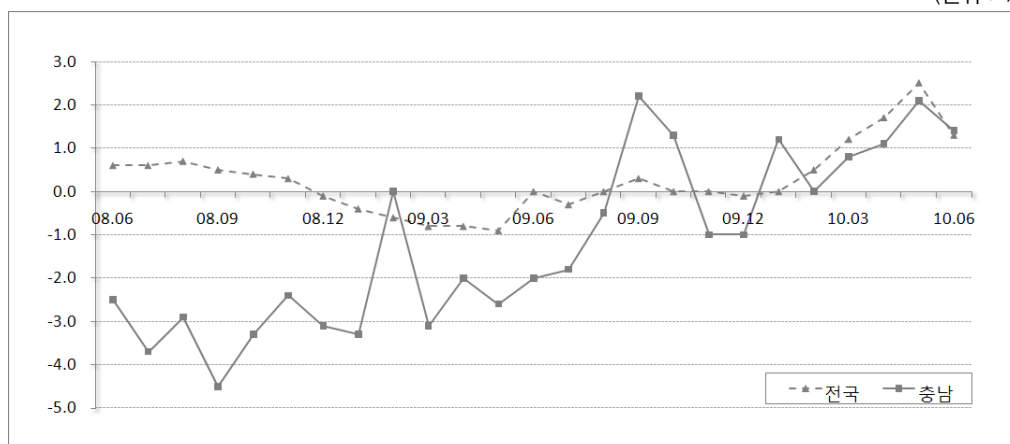
- 2010. 6월 충남의 15세이상 인구(+1.5%)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동일
 - 15세이상 인구는 1,612천명으로 전년동월(1,588천명)보다 24천명(+1.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37천명으로 전년동월(1,037천명)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전년동월(65.3%)에 비해 1.0%p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 2010. 6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0.9% 각각 증가
- 광업제조업(+18.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 부문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0%) 부문은 감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0. 6월 충남의 실업자는 22천명으로 전년동월(36천명)대비 14천명(-39.7%)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3.5%)대비 1.4%p 하락한 2.1%

6. 금융

[수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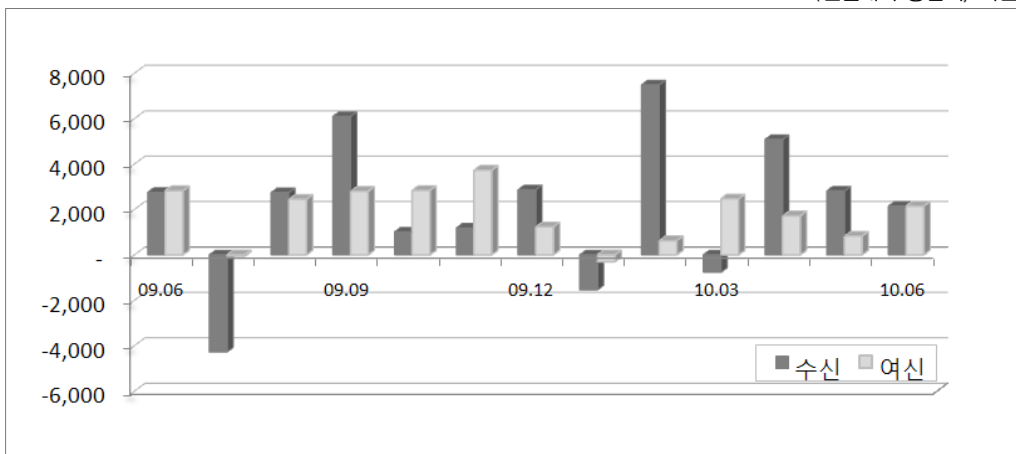
- 2010. 6월 충남의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의 수신금리인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규모 축소로 감소로 전환, 상호금융의 예금 증가 및 토지보상자금 수신과 농산물판매대금 수신 등으로 증가
- 예금은행 감소 전환, 비은행기관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 : 5월 +1741억원, 6월 -1,153억원
 - 비은행기관 : 5월 +1,072억원, 6월 +3,298억원

[여신부문]

- 2010. 6월 충남의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증가가 지속되어 증가 지속, 상호금융의 농업자금 및 아파트 담보대출 증가 및 신용협동조합의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 지속
- 예금은행 여신 감소 전환,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
 - 예금은행 : 5월 +104억원, 6월 +1,458억원
 - 비은행기관 : 5월 +719억원, 6월 +686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부도율]

- 2010. 6월 충남의 부도율은 0.24%이며 전월대비 0.05%p 증가
 - 지역별로는 천안 0.30%, 홍성 0.38%, 논산 0.20%, 공주 0.00%, 서산 0.05% 기록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0. 6월 충남의 건축허가 면적은 867천 m^2 로 전월대비(46.5%) 감소,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6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52.9%), 상업용(17.4%), 주거용(12.8%)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781,002	537,911	637,912	591,696	866,573	11.0	46.5	
주거용	168,553	124,429	131,844	107,737	111,125	-34.1	3.1	
상업용	96,787	116,769	172,500	100,481	150,977	56.0	50.3	
농수산물	44,179	71,668	88,198	78,177	59,937	35.7	-23.3	
공업용	87,626	128,981	169,493	196,653	458,628	423.4	133.2	
기 타	383,857	96,064	75,877	108,648	85,906	-77.6	-20.9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0. 6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752천 m^2 로 전월대비 23.4%, 전년동월대비 72.4% 각각 증가
 - 6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58.4%), 주거용(14.4%), 상업용(13.0%)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36,107	701,791	542,246	609,255	751,798	72.4	23.4	
주거용	62,793	108,577	137,849	97,332	108,025	72.0	11.0	
상업용	176,101	238,489	104,710	68,621	97,558	-44.6	42.2	
농수산물	50,054	73,518	78,722	75,699	65,146	30.2	-13.9	
공업용	53,289	95,431	154,272	251,258	439,021	723.8	74.7	
기 타	93,870	185,776	66,693	116,345	42,048	-55.2	-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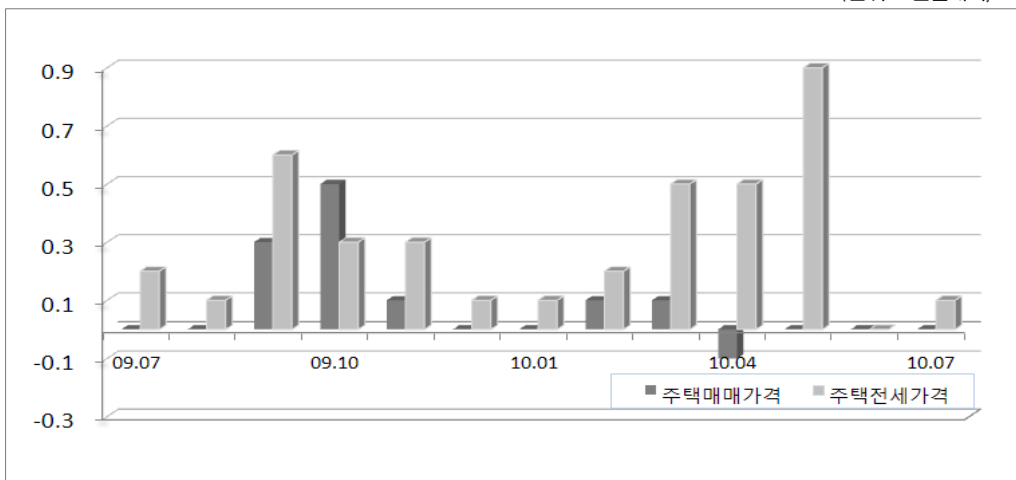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0. 7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세 달 연속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남(0.0%)
 -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 위축
 - 아산(+0.2%)와 논산(+0.2%)이 주요 상승지역임
- 2010. 7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증가(+0.1%)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4%), 공주(+0.1%)지역이며, 유형별 전세가격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다소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은 보합세 유지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0.7.13~7.16] 쿠알라룸푸르 「AAPA Asian Attractions Expo 2010」 참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보령 머드랜드, 서산 간월도관광지, 서천 춘장대관광지, 예산 덕산관광지,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등 5개 관광지의 투자 여건 및 환경,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환경 적극 홍보

['10.7.13] 청양 칠갑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최우수 권역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05년 착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종합평가 결과, 도내 2개소가 최우수·우수권역으로 선정(전국 9개소 선정)
- '청양 칠갑산권역'이 최우수(1등), '홍성 문당권역'이 우수 (3등)로 7억 4천만원의 인센티브 수상(추가 예산 7억원, 권역발전기금 4천만원)

['10.7.20] 충남 유치기업 BASF社 & 희성피엠텍(주) 당진공장 기공식

- 당진 부곡산업단지에서 충남도 유치기업인 희성피엠텍(주)(대표이사 손대성)의 기공식에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
- 자동차와 석유화학 공업에서 발생하는 폐촉매 등에서 백금 등 귀금속을 회수 정제하는 기업으로 '14년까지 15,200㎡에 700억원 투자, 향후 6년간 670여명 고용 창출

['10.7.20] 모범근로자 자녀를 위한 「희망장학재단」 설립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의장 정근서) 주관으로 드라마 웨딩홀(천안 서북구 소재)에서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개최

['10.7.21~7.24] 2010벤처테크노 상해상담회 참여

- 충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주)코어비트 등 도내 13개 입주업체는 1,002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574만 달러 계약
- ※ 해외시장 진출 희망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월 일본 동경, 11월 미국 LA에서 상담회 계획

['10.7.21]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충남지부 발족

- 충남 통일관 대강당(공주시 웅진동)에서 16개 시·군 소비자단체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갖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가루 요리법 보급 등 쌀 소비확대 추진 등의 활동 추진(위원장 조춘자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부장)

['10.7.22] 2010년 충남 유망중소기업 27개 업체 지정

- 유망 중소기업 공모에 응모한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기술·품질·경제활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7개 업체를 지정하고, 6년간 자금·판로·기술 등 집중 육성
- 에프씨반도체(주), 에이디엠, 케빛테크놀로지(주), 일진산업(주), (주)필캠, 우광산업(주), 비엔케이(주), (주)아름다운화장품, 다-마인드테크, 정양수지, 창덕식품, 대한냉열공업(주), (주)가림티에스, 데코리아제과(주), (주)에스엠테크텍스, (주)하이스콘, (주)엠피씨, 가나다푸드시스템(주), (주)명품코리아, (주)부광케미컬, (주)청정인삼, (주)피비에스, (주)광현, 광천솔피식품, (주)고려비엔피, 태영세라믹(주), (주)제이테크
- ※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90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해 109개 업체가 지원이 완료됐고 37개 업체가 지정 취소돼 현재 144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음

['10.7.22] 美Dow Chemical, OLED 전자재료 전용공장 천안에 완공

- 충남도 이인화 행정부지사, 업체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외국인투자 산업 단지 내 최첨단 발광물질 생산공장 준공식 개최

['10.7.22] 충남 농공단지협의회(2지구) 간담회

- 2지구 6개 시·군(보령·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소속 협의회장 및 관리소장 등 25명이 참석하여 협의회 운영상황 및 '10년 노후시설 개선과 '11년 오·폐수시설 국비 신청내용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협의

['10.7.23]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 컨벤션과 교역기능을 강화한 산업엑스포로 다시 개최함으로써 고려인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확대 도모하는 계기
- ※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충남도와 금산군 공동으로 '11.9.2~10.3일까지 32일간 개최

['10.7.23] 1사1하천 가꾸기 협약식 체결

-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주민, 환경NGO,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하여 환경부와 충청남도, 5개 기업(남양유업, (주)농심, 빙그레(주), 한국타이어(주), 애경그룹)이 협약식 체결

['10.7.26] 충남도, SK에너지(주)와 투자협약 체결

-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상곤 서산시장, 구자영 SK에너지(주) 대표이사(사장)가 참석한 가운데 서산 일반산업단지 내 23만1,000㎡(약 7만평)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투자협약 체결(500MWh 규모)
- 향후 5년간 1조 6천억의 생산유발과 1만명 고용창출, 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0.7.26] 민선5기 경제정책 방향 정립 워크숍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공주시 금홍동)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14개 현안과제 발표와 토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 * 전통시장 활성화 * 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Post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 * 수요자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방안 * 산업단지 개발분야 경제정책 운영방향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산업 육성 * 지역 핵심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 시·군 연고산업 육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 * 산학협력 지원강화
---	---

['10.7.27] 2010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 12개 업체 1차 선정

- 사업응모(6.1~6.3) 결과 18개 업체(NEW-IT 9, 의약바이오 9) 중 충남 12개 업체 선정(R&D 7, 非R&D 5)하고, 597억원 지원 예정
- 차세대 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신약실용화 분야에 (주)디오시스템즈, AM테크놀러지(주), (주)GHD코리아, (주)유니젠, (주)한국BMZ, 익스제약(주), (주)글로텍, 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상명대, 순천향대 등

['10.7.28] 지역 일자리 공시제 사업설명회

- 고용노동부 주관 권역별 사업설명회로서 대전·충남·충북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시군 담당과장 등 150명이 참석하여 지역 일자리 공시제 사업 설명과 시행방안 토론
- 충남테크노파크의 3D 입체영상 기술인력 양성과정과 충남벤처협회의 충남고용포럼사업 등 우수사례 발표

['10.7.30] 서산 대산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면적을 4,459m² 감하고,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입주순위를 변경함
(당초 현대오일뱅크 → 변경 현대오일뱅크, 에이치씨 페트로켄 및 협력사)

['10.7.30] 제17회 충남 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선정

-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10개 업체를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로 확정
- 우수기업으로 종합대상 (주경보제약(대표 이경주), 경영대상 아하엠텍주(대표 안동권), 기술대상 제일원텍주(대표 박영서), 수출대상 (주대영오앤이(대표 정대영), 창업대상 (주지앤씨바이오(대표 김고성) 등 5개 기업 선정
- 우수 기업인으로 (주이글벳(대표 강승조), (주고려바이오홍삼(대표 문병두), (주삼능(대표 정덕조), 신일폴리텍(대표 윤종진), 태양금속공업주(대표 이세운) 등 5명의 기업인 선정

['10.8.6] 2010세계대백제전, 한국관광문화교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위원장실에서 한국관광문화교류재단(이사장 이상만)과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국내거주 외국인과 미8군 장병 등 관람객 유치 공동사업 추진

['10.8.16] 제7회 에너지의 날 행사

- 충남에너지시민연대 및 그린스타트천안네트워크 주관으로 천안(쌍용동 방아다리 공원)과 당진(문예회관 광장) 등 도내 일원에서 하계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1시간 에어컨 끄기」(14:00~15:00)와 「5분간 소등」(21:00~21:05) 행사 실시

['10.8.25] 제92차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불당동)에서 경제포럼 회원, 기관·단체장 및 회원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향후 10년의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 등 주제 강연과 함께 세미나 개최

['10.8.27]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7층 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부시장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육성시책 설명과 지자체의 지역경제 육성방향에 대해 토의

['10.8.30] 제8차 충남경제연구회 개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당진읍 소재) 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하여 송악지구 사업추진 방안 및 지역주민 민원해소 대책 등에 대해 토의

2010 소상공인자금 추가 지원계획

- 추가지원 : 300억원
- 신청기간 : 2010. 7. 2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경영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대출금리 1.75%~2% 이자보전)
- 지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2%),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75%)
- 신청 : 충남 소상공인지원센터(아산, 공주, 서산, 논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과로 문의(T.042-220-3224)

2010 제6회 기업사랑 우수 혁신사례 포상

- 응모기간 : 2010. 8. 3(월)~9. 3(금)
※ 심사 : 9. 17(금), 수상자 통보 : 9. 27(월), 시상식 : 10. 12(화)
- 응모대상 :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 포상규모 : 국무총리상 1점(500만원), 장관상 5점(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으로 문의(02-6050-3454)

2010 추석대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
- 지원한도 : 일반기업(3억원), 연간 100만\$ 이상 수출기업·선도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금리(시중금리), 이자보전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청 : 2010. 8. 18~8. 27,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과로 문의(T.042-220-3224)

2010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시행

- 시행일 : 2010. 7. 26(월)~자금소진시까지
- 보증규모 : 3,800억원(전국 10조원)
- 지원한도 및 상환조건
 - 사업운영자금(2천만원 이내), 창업자금(5천만원 이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긴급생계자금(1천만원 이내) : 3~5년 간 매월 균등상환
- 대출금리 : 10.6%(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13.1%(저축은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과로 문의(T.042-220-3307)

2011 지역연구산업 신규사업 공모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 신 청 : 8. 19(목), 충남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득증대효과가 큰 특화자원을 활용한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등 SW 지원사업
- 지원사항 : 국비 연 6억원 내외(3년간), 지방비 10~20%이상, 민자 5~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충남테크노파크로 문의(T.041-589-0111)

2010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 공모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이 충남으로 되어 있는 업체 및 충남지역 생산 제품
- 출품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민·공예품, 공산품, 관광기념품 등)
- 신 청 : 7. 30(금)~8. 12(목), 충남문화산업진흥원(shkim21@ctia.kr)
※ 실물 작품 접수 : 8. 23(월) 13:00~17:00, 충남도청
- 선정기준 : 자사 고유 브랜드와 해외인증서 보유업체 1순위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으로 문의(041-620-6412)

2010 일본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신청자격 : 도내 본사와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모 집 : 7개 업체 내외(전기·전자, LED, 에너지절전제품 등)
- 신 청 : 8. 3(화)~8. 27(금), 통상지원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북부지부
※ 운영기간 : 11. 15(월)~11. 19(금), 일본(오사카, 도쿄)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통역비, 상담장 임차비, 1인 왕복항공료 등
- 선정기준 : 중앙 및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해외유명규격인증 보유업체 우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042-251-2455)

제9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신청자격 : 도내 본사와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모 집 : 10개 업체 내외(전기전자, 기계, 생활용품, 섬유, 미용, 식품)
- 신 청 : 7. 28(수)~8. 13(금), 통상지원과 및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
- 지원내용 : 참가비(9㎡의 1개 부스 임차, 기본 장치비)
- 선정기준 : 유망 중소기업, 유명 인증 또는 특허 보유업체 가점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042-251-2309)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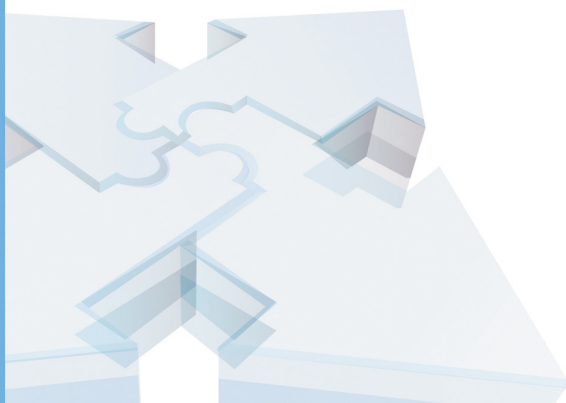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新소통 전략(764호)
 - 국가채무의 적정비율(765호)
 -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766호)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한국의 대 아시아 수출 구조변화와 시사점
 - 중국 생산기지 매력도 감소
 - 국내 자동차 탄소세 도입의 기본방향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1102호)
 - '10년 후 중국에서 살아 남으려면...(1102호)
 - 금값에 담겨있는 세계 경제의 고뇌(1103호)
 - Female Economy가 세상을 바꾼다(1105호)
 - 중국경제가 급락한다? 리스크 있지만 경착륙은 없다(1105호)
-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 자본규제 논의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2010년 하반기 산업전망
 - 2010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 아시아 무역의 성장과 역내 협력방향
 -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와 영향
-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 자본형성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287	—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5	—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47	—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1.1	—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
경제성장률	%	4.0	5.2	5.1	2.2	—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5	—
광공업		27.8	27.4	27.5	28.3	—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8	—
건설업		7.6	7.5	7.4	7.0	—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3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2	—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7	—
민간비중	%	30.5	32.5	34.4	30.6	—
정부비중		69.2	67.5	65.6	69.4	—
총자본형성	십억원	247,511	256,866	269,188	286,918	—
국내비중	%	19.3	18.3	16.7	16.5	—
국외비중		80.7	81.7	83.3	83.5	—
최종소비지출	%	65.9	67.7	69.0	69.1	—
민간비중	%	20.2	20.5	21.0	21.3	—
정부비중		79.8	79.5	79.0	78.7	—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8.2기준)

금리

구 분	'08말	'09말	'10.6말	7.29	7.30	8.2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3.02	2.01	2.03	2.28	2.28	2.28	0.00	0.27
CD(91일),%	3.93	2.86	2.46	2.63	2.63	2.63	0.00	△0.23
국고채(3년),%	3.41	4.41	3.86	3.80	3.80	3.81	0.06	△0.55
국고채(5년),%	3.77	4.92	4.44	4.38	4.38	4.42	0.04	△0.50
회사채(3년, AA-),%	7.72	5.53	4.77	4.75	4.75	4.78	0.03	△0.75

주가

구 분	'08말	'09말	'10.6말	7.29	7.30	8.2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124.47	1,682.77	1,698.29	1,770.88	1,759.33	1,782.27	1.30%	5.91%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2,692	42,856	54,029	58,458	53,414	58,194	4,780	153377
KOSDAQ지수	332.05	513.57	498.98	482.56	481.45	481.98	0.11%	△6.15%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80,648	301,051	5,286	25,520	26,913	10,872	△10576	

※ 기간중 : '08말('08.1.1~12.31), '09말('09.1.1~12.31), '10.6말('10.6.1~6.30), 8.2('10.8.1~8.2).

환율

구 분	'08말	'09말	'10.6말	7.29	7.30	8.2	전일비	'09말비
₩/US(종가)	1,259.50	1,164.50	1,222.20	1,186.40	1,182.70	1,172.50	+0.87	△0.68
선물환(NDF, 1개월물)	1,257.60	1,165.90	1,223.10	1,188.20	1,184.40	1,174.50	+0.84	△0.73
₩/¥100	1,396.81	1,264.52	1,380.55	1,360.24	1,368.71	1,354.40	+1.06	△6.64
¥/US	90.17	92.09	88.53	87.22	86.41	86.57	△0.18	+6.38
US/EUR	1.4093	1.4325	1.2211	1.3011	1.3063	1.3081	+0.14	△8.68
CNY/US	6.8506	6.8279	6.7892	6.7768	6.7733	6.7727	+0.01	+0.82

※ '09년 평균 환율 : (₩/US)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S) 1,162.2원, (₩/¥100) 1,281.8원.

※ 전일비(%) 및 '08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8말	'09말	'10.6말	7.29	7.30	8.2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1.43	0.25	0.53	0.47	0.45	0.44	△0.01	0.20
T/NOTE(10년물)	2.21	3.83	2.93	2.99	2.91	2.97	△0.08	△0.93
DOW	8,776	10,428	9,774	10,467	10,466	10,674	△0.01%	0.36%
NIKKEI	8,860	10,546	9,382	9,696	9,537	9,570	0.35%	△9.26%
SANGHAI COMP	1,821	3,277	2,398	2,648	2,638	2,673	1.33%	△18.45%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405	59	226	197	197	196	0	138
CDS (bp, 5Y)	316	86	133	102	104	100	2	18
CRS (% , 1Y)	1.10	2.25	1.28	1.90	1.83	1.93	0.10	△0.32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8말	'09말	'10.6말	7.29	7.30	8.2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36.45	78.04	73.14	73.40	73.75	76.01	0.35	△4.29
WTI 2월 선물 (\$/bbl)	50.57	79.36	75.64	78.36	78.95	81.34	0.59	△0.41
원당(센트/파운드)	11.8	26.95	16.06	19.50	19.57	19.40	0.36%	△27.38%
밀 (센트/부셀)	611	542	480	628	662	693	5.42%	22.16%
대두 (센트/부셀)	972	1,049	903	988	1,005	1,010	1.72%	△4.15%
옥수수 (센트/부셀)	407	415	363	394	407	405	3.31%	△1.86%
동 (\$/톤)	3,050	7,377	6,542	7,234	7,218	7,367	△0.23%	△2.16%
알루미늄 (\$/톤)	1,520	2,242	1,954	2,098	2,138	2,192	1.91%	△4.64%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6.44\$, (WTI) 78.16\$.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82,435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4	—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96	—
산업구조	—					—
농림어업	%	8.2	7.6	6.7	6.4	—
광공업		43.4	44.7	45.9	47.1	—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3.1	—
건설업		9.6	9.3	8.7	9.2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3	—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7 06	116.8	0.48	8.9	7.9	101.3	0.03
07	117.0	0.20	8.0	7.5	101.0	-0.24
08	117.6	0.49	7.7	7.4	101.1	0.07
09	118.3	0.60	7.7	7.4	101.3	0.20
10	119.2	0.76	7.9	7.5	101.7	0.38
11	119.8	0.44	7.4	7.4	101.7	0.07
12	120.4	0.52	7.1	7.2	101.9	0.16
2008 01	120.9	0.45	6.7	7.0	102.0	0.11
02	122.0	0.91	7.3	7.3	102.6	0.60
03	122.9	0.68	7.4	7.4	103.0	0.38
04	122.8	-0.07	6.1	6.6	102.6	-0.37
05	122.6	-0.13	4.9	5.7	102.2	-0.42
06	122.5	-0.09	3.8	4.9	101.8	-0.36
07	122.8	0.25	3.6	4.5	101.8	-0.00
08	123.2	0.32	3.4	4.2	101.9	0.08
09	123.1	-0.06	2.6	3.6	101.6	-0.30
10	123.6	0.35	2.6	3.4	101.7	0.13
11	123.3	-0.22	1.6	2.7	101.3	-0.44
12	122.0	-1.07	-0.8	1.2	100.0	-1.29
2009 01	120.0	-1.60	-3.9	-0.8	98.2	-1.79
02	118.5	-1.27	-6.1	-2.4	96.8	-1.44
03	117.4	-0.96	-7.3	-3.7	95.7	-1.12
04	117.0	-0.29	-7.2	-4.3	95.2	-0.47
05	117.4	0.35	-5.9	-4.2	95.3	0.15
06	119.3	1.61	-2.4	-2.7	96.7	1.35
07	120.9	1.36	0.5	-1.3	97.8	1.12
08	122.1	0.94	2.5	-0.2	98.5	0.73
09	123.6	1.22	4.9	1.4	99.5	1.01
10	124.7	0.89	6.6	2.7	100.2	0.68
11	125.7	0.81	8.0	3.9	100.5	0.34
12	126.3	0.51	8.7	4.7	100.6	0.01
2010 01	127.6	1.03	10.2	5.9	101.1	0.51
02	128.8	0.94	11.0	7.0	101.5	0.40
03	129.7	0.72	11.1	7.7	101.6	0.15
04	130.4	0.50	10.4	8.2	101.8	0.20
05	131.2	0.62	9.8	8.7	102.1	0.32
06	132.3	0.82	9.6	9.3	102.6	0.52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13,880	9.4	—	729,608	10.5	—
2009 2/4	242,815	10.3	-0.9	174,293	13.0	-2.2
3/4	252,688	7.4	4.1	189,818	7.8	8.9
4/4	273,383	9.7	8.2	187,292	9.0	-1.3
2010 1/4	276,147	12.7	1.0	201,959	13.3	7.8
2/4	258,380	6.4	-6.4	191,911	10.2	-4.9
2008 06	71,812	25.6	-6.7	51,439	28.9	-3.6
07	76,640	24.1	6.7	57,696	27.6	12.2
08	76,872	19.9	0.3	59,216	18.9	2.6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91,284	27.6	6.1	68,632	34.9	13.5
02	71,135	-5.0	-22.1	50,595	-7.6	-26.3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3,908	9.5	8.4	64,356	11.5	13.8
08	82,884	7.8	-1.2	64,166	8.4	-0.3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2010 01	91,525	0.3	-5.2	65,691	-4.3	-2.6
02	95,815	34.7	4.7	72,815	43.9	10.8
03	88,807	7.5	-7.3	63,453	7.6	-12.9
04	82,498	5.9	-7.1	59,658	9.3	-6.0
05	92,366	5.6	12.1	67,764	7.3	13.6
06	83,516	7.9	-9.6	64,569	14.1	-4.7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9 2/4	113.2	2.6	114.8	1.6	107.5	10.7	113.5	2.7	112.1	2.0	113.1	2.7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10 1/4	115.1	2.9	117.0	3.5	111.2	6.1	115.2	2.8	114.7	3.1	115.1	2.9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2008 07	112.1	6.5	115.2	8.1	96.7	-7.4	112.2	6.5	111.4	6.5	112.2	6.4
08	111.8	6.1	114.5	7.4	98.9	-5.1	111.9	6.2	111.1	6.0	111.9	5.9
09	111.6	5.5	114.0	6.2	98.2	-11.8	111.8	5.6	111.0	5.4	111.6	5.4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9 2/4	9,287	-15.6	27.7	4,325	-45.6	2.9	4,962
3/4	11,043	-11.4	18.9	5,033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10.4	6,267
2010 1/4	11,713	61.2	-0.9	5,756	36.8	3.6	5,957
2/4	13,487	45.2	15.1	6,202	43.4	7.7	7,285
2008 06	3,693	-3.5	0.4	2,686	22.0	4.2	1,007
07	3,916	-6.4	6.0	3,163	43.5	17.8	753
08	4,325	1.8	10.4	2,609	35.3	-17.5	1,716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5	47.8	-8.8	1,847
02	3,650	53.1	-0.3	1,902	26.3	4.8	1,749
03	4,402	51.4	20.6	2,041	38.7	7.4	2,361
04	4,399	46.0	-0.1	1,906	38.8	-6.4	2,489
05	4,488	48.9	2.0	1,929	49.4	1.0	2,559
06	4,600	41.2	2.5	2,363	41.7	22.5	2,237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7	1,547	1,021	998	23	2.2	64.5
2008	1,564	996	973	24	2.4	62.2
2009	1,588	991	961	29	3.0	60.5
2009 2/4	1,585	1,021	988	33	3.3	62.4
3/4	1,592	1,020	991	28	2.8	62.3
4/4	1,598	992	965	27	2.8	60.4
2010 1/4	1,605	941	906	35	3.7	56.5
2/4	1,610	1,028	1,003	24	2.4	62.3
2008 06	1,563	1,041	1,021	19	1.9	65.3
07	1,565	1,022	997	25	2.4	63.7
08	1,566	1,017	995	22	2.1	63.5
09	1,568	1,010	984	26	2.6	62.8
10	1,569	1,022	999	23	2.3	63.6
11	1,571	1,010	982	28	2.8	62.5
12	1,572	951	921	29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2.8	55.9
02	1,577	923	895	27	3.0	56.8
03	1,580	959	926	33	3.5	58.6
04	1,582	1,008	978	29	2.9	61.8
05	1,585	1,020	986	34	3.3	62.2
06	1,588	1,037	1,001	36	3.5	63.1
07	1,590	1,012	980	32	3.2	61.6
08	1,592	1,016	989	26	2.6	62.1
09	1,594	1,032	1,005	27	2.6	63.1
10	1,596	1,040	1,012	28	2.7	63.4
11	1,598	999	972	27	2.7	60.8
12	1,600	939	912	27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4.4	55.5
02	1,605	936	896	40	4.3	55.8
03	1,606	957	933	24	2.5	58.1
04	1,608	1,015	989	25	2.5	61.5
05	1,610	1,031	1,006	25	2.5	62.5
06	1,612	1,037	1,015	22	2.1	63.0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08 06	129,003	194,498	323,501	167,063	114,563	281,626
07	125,792	193,484	319,276	168,909	115,922	284,831
08	127,090	193,140	320,230	170,215	117,581	287,796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397	274,403	418,800	225,915	148,606	374,521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9 2/4	0.11	0.22	0.06	0.73	0.38	0.00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10 1/4	0.07	0.20	0.27	0.23	0.00	0.05
2/4	0.18	0.20	0.35	0.21	0.04	0.07
2008 06	0.57	0.76	0.54	0.45	1.81	0.01
07	0.26	0.21	0.57	0.24	1.00	0.06
08	0.85	0.81	2.29	0.16	0.82	0.27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9 2/4	77,357	35.2	1,777,754	-5.3	1,309,835	-1.9	51,231	2.7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10 1/4	45,610	-40.1	1,399,393	-14.0	1,435,241	52.9	40,044	-22.3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2008 06	18,739	60.2	585,106	13.4	373,960	13.0	16,750	49.0
07	18,862	61.2	723,613	-20.5	515,290	-27.7	16,646	55.5
08	13,922	-2.3	654,360	-5.4	373,723	-16.3	16,069	47.0
09	10,952	10.4	569,516	30.7	308,400	-0.6	16,186	47.6
10	16,759	30.9	742,487	-38.0	742,463	34.2	15,662	38.2
11	12,398	-26.4	814,228	-60.5	312,457	-70.1	15,277	32.8
12	14,181	-19.7	1,394,576	81.3	256,170	-52.6	15,918	24.7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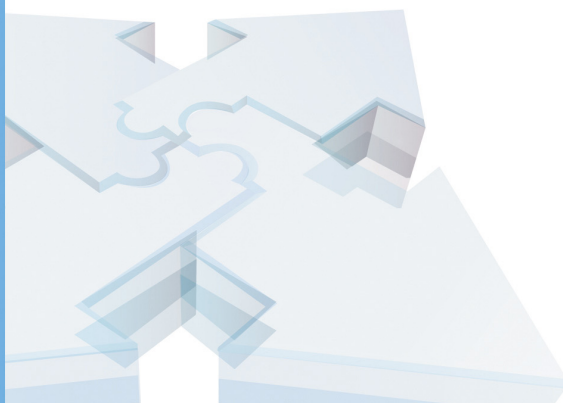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6 07	98.5	-0.1	-0.1	98.3	100.2	95.2	95.8	1.8	0.3	96.4	95.5	96.3
08	98.7	0.5	0.2	98.1	100.7	95.2	95.9	2.0	0.2	96.5	95.7	96.4
09	99.0	1.0	0.4	98.1	101.5	96.0	96.3	2.1	0.4	96.7	96.4	96.4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04	100.1	0.8	-0.1	100.3	99.2	101.9	101.6	2.8	0.5	101.2	101.9	103.7
05	100.1	1.0	0.0	100.4	99.2	102.2	102.5	3.6	0.9	101.7	103.4	104.4
06	100.1	1.1	0.0	100.4	99.2	102.4	102.5	3.7	0.0	102.2	102.9	104.1
07	100.1	1.1	0.0	100.5	99.2	102.4	102.6	3.6	0.1	102.7	102.9	104.1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7 06	732.0	-0.06	135.9	1.19	105.7	0.38
07	733.3	0.18	137.5	1.12	103.1	-2.48
08	736.6	0.46	138.7	0.89	104.9	1.73
09	738.9	0.31	140.3	1.14	109.9	4.77
10	740.2	0.18	142.5	1.57	114.3	4.00
11	739.4	-0.11	144.5	1.42	115.0	0.62
12	742.6	0.43	146.7	1.53	112.6	-2.12
2008 01	748.6	0.81	148.4	1.18	113.8	1.14
02	754.7	0.82	150.7	1.50	116.5	2.30
03	757.7	0.39	152.5	1.19	120.4	3.38
04	758.2	0.08	153.1	0.40	121.4	0.88
05	757.3	-0.12	154.9	1.21	121.6	0.15
06	761.0	0.49	157.0	1.31	122.3	0.57
07	763.2	0.30	157.3	0.19	123.0	0.57
08	767.6	0.57	158.3	0.67	124.2	0.94
09	765.0	-0.33	159.3	0.62	122.8	-1.14
10	767.5	0.32	160.6	0.85	124.2	1.14
11	767.0	-0.06	158.1	-1.59	126.9	2.23
12	767.4	0.05	150.9	-4.52	127.5	0.44
2009 01	758.5	-1.16	146.5	-2.95	126.7	-0.61
02	752.0	-0.85	144.0	-1.70	122.7	-3.21
03	740.6	-1.52	143.7	-0.20	123.7	0.82
04	741.1	0.07	144.8	0.72	122.9	-0.60
05	742.1	0.14	149.8	3.50	125.5	2.06
06	747.0	0.66	160.5	7.12	126.6	0.89
07	744.4	-0.34	171.5	6.83	128.3	1.36
08	745.1	0.09	180.7	5.41	128.4	0.09
09	749.6	0.60	188.9	4.54	129.4	0.76
10	752.1	0.34	194.9	3.15	129.1	-0.24
11	751.6	-0.07	198.8	2.03	130.9	1.42
12	746.7	-0.65	202.2	1.71	131.8	0.64
2010 01	747.0	0.03	204.9	1.34	134.9	2.33
02	749.7	0.37	206.2	0.60	137.9	2.28
03	754.5	0.63	207.5	0.66	137.4	-0.39
04	759.9	0.72	208.6	0.51	134.5	-2.10
05	762.2	0.31	211.2	1.23	131.1	-2.49
06	764.2	0.26	213.8	1.24	132.3	0.92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7 06	2,283,235	0.87	4,054,187	1.52	2,106,915	1.69
07	2,303,622	0.89	4,142,124	2.17	2,097,878	-0.43
08	2,326,068	0.97	4,226,555	2.04	2,067,628	-1.44
09	2,352,706	1.15	4,268,199	0.99	2,024,161	-2.10
10	2,376,576	1.01	4,330,717	1.46	2,029,234	0.25
11	2,404,047	1.16	4,449,413	2.74	2,021,654	-0.37
12	2,428,815	1.03	4,567,917	2.66	2,041,531	0.98
2008 01	2,452,476	0.97	4,471,625	-2.11	2,028,178	-0.65
02	2,476,855	0.99	4,416,260	-1.24	2,087,105	2.91
03	2,504,556	1.12	4,299,592	-2.64	2,128,319	1.97
04	2,513,878	0.37	4,164,586	-3.14	2,104,635	-1.11
05	2,531,723	0.71	3,989,558	-4.20	2,073,894	-1.46
06	2,544,883	0.52	3,766,086	-5.60	2,018,746	-2.66
07	2,564,587	0.77	3,708,526	-1.53	2,036,918	0.90
08	2,575,844	0.44	3,735,533	0.73	2,009,331	-1.35
09	2,581,604	0.22	3,793,343	1.55	1,995,850	-0.67
10	2,608,533	1.04	3,831,981	1.02	1,964,275	-1.58
11	2,599,474	-0.35	3,769,763	-1.62	1,956,497	-0.40
12	2,566,561	-1.27	3,625,334	-3.83	1,912,615	-2.24
2009 01	2,549,114	-0.68	3,502,779	-3.38	1,787,427	-6.55
02	2,533,707	-0.60	3,332,121	-4.87	1,740,354	-2.63
03	2,520,530	-0.52	3,255,402	-2.30	1,673,066	-3.87
04	2,516,291	-0.17	3,241,820	-0.42	1,608,384	-3.87
05	2,526,444	0.40	3,323,442	2.52	1,520,292	-5.48
06	2,573,991	1.88	3,512,169	5.68	1,508,080	-0.80
07	2,606,810	1.28	3,708,731	5.60	1,525,056	1.13
08	2,638,797	1.23	3,856,513	3.98	1,503,246	-1.43
09	2,676,826	1.44	3,957,885	2.63	1,520,593	1.15
10	2,713,674	1.38	4,079,898	3.08	1,534,191	0.89
11	2,762,826	1.81	4,204,614	3.06	1,551,118	1.10
12	2,814,553	1.87	4,360,569	3.71	1,559,523	0.54
2010 01	2,889,553	2.66	4,463,433	2.36	1,604,862	2.91
02	2,959,248	2.41	4,539,501	1.70	1,641,983	2.31
03	3,024,533	2.21	4,642,087	2.26	1,657,829	0.97
04	3,079,806	1.83	4,706,679	1.39	1,670,609	0.77
05	3,135,017	1.79	4,814,866	2.30	1,713,642	2.58
06	3,175,755	1.30	4,875,735	1.26	1,773,851	3.51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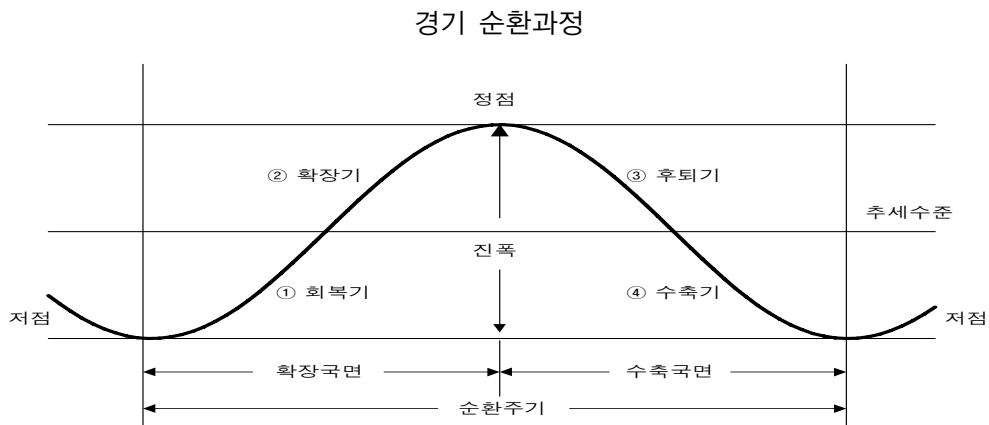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율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text{구성지표}), \quad t = 2, 3, \dots, T(\tex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quad (\text{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0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199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www.baekje.org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2010 세계대백제전
201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2010 09
18
-
10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대충청방문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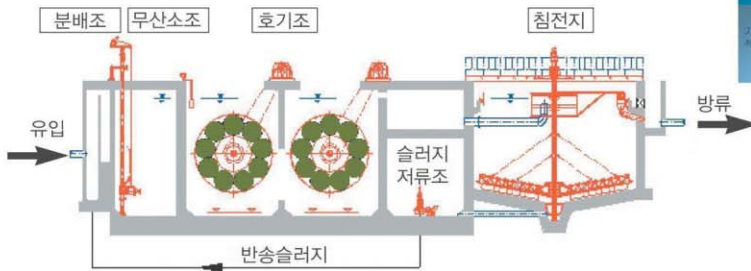
Korea
Sparkling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
공주시 (웅진)

“믿을 수 있는 약속.. 고객님께 맑은물 푸른 환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무기 복합담체로 충전한 완전침지형 담체회전기를 이용한 하수의 고도처리기술 (DMR공법) [환경신기술 제130호]

공 정 도



- 특허 제 0477841호
- 특허 제 0481973호
- 특허 제 0536068호
- 특허 제 0551914호
- 특허 제 0572662호

담체회전기



유동식 담체 + 고정식 담체로 담체를 담체회전기에 고정하여 회전하는 기술

- 유입수와 용존산소와 미생물의 접촉을 원활 하도록 함
미생물이 담체에 골고루 부착
- 수류 전단력에 의한 적절한 탈리가 이루어져 세척장치가 불필요

- 담체 내·외부의 거대기공(50~500 μ m)으로 미생물 서식환경이 우수
- 개기공과 폐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내부까지 물질전달이 용이
- 표면거칠기가 커서 미생물 부착이 용이하고 탈리가 적음
- 무기흡착소재에 의한 유기물 흡착으로 미생물 친화적 환경이 조성
- 다양한 종류의 질산화세균, 인산화세균 및 탈질세균 서식

유·무기복합담체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도기업 지정

소규모 하수고도처리 일체형장치

- 200 m^3 /일 이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토목구조물이 필요 없는 일체형(패키지) 제작으로 부지 및 예산이 절감
- 장치를 운반 가능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운반 설치하므로 공사기간이 현저히 단축
- 시설 용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이 가능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적
- 일체형(패키지) 장치는 부식성에 우수한 스테인리스제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커버로 덮여 외관이 미려하고 방음장치를 하여 소음이 적어 민원발생 우려가 적음
- 통합관리 및 자동운전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므로 상주 유지관리자가 필요치 않음

특허 제 0572662호



CReBIZQM

ISO9001

CReBIZQM

ISO14001

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NTT

환경신기술

DAIHO

대호산업(주)

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요리 114
TEL. 041)742-6082~84 FAX. 041)741-6083
<http://www.daiho21.com>